

TV 13일

★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
KBS1	KBS2	MBC	KBC/SBS
00 KBS 뉴스광장	00 굿모닝 대한민국 1~2부	6 30 MBC 뉴스투데이 1~2부	00 출발! 모닝와이드 1~2부
50 인간극장	50 KBS 스포츠 타임	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<위험한 여자>	15 KBC 뉴스지금 40 출발! 모닝와이드 3부
25 아침마당	00 KBS 아침 뉴스타임	8 30 F1 코리아 그랑프리 특집 생방송 오늘 아침	40 아침연속극 <미쓰 아줌마>
30 KBS 뉴스	00 생활의 발견 오감도 20 아침드라마 <두근두근 달콤>	9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	20 좋은아침
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 문화 행복한 세상	00 여유만만	10	40 SBS 뉴스
00 즐거운 책 읽기 55 비틀말 고운말	00 지구촌 뉴스 20 TV 특강(재)	11 00 문화이색	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
00 KBS 뉴스12	00 일일연속극 <우리집 여자들>(재)	12 00 MBC 뉴스 15 늘 푸른 인생 스페셜	00 SBS 12 뉴스 30 테이스티쇼
00 KBS 걸작선 <사랑을 믿어요>(재)	40 영상앨범 산	1 05 휴먼다큐 그날 스페셜 30 제47회 추계 중등 축구연맹전 <교학년 결승>	30 도전! 슈퍼대디
00 KBS 뉴스 10 중계방송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	10 다큐시대	2 00 F1 일본 그랑프리	00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(재)
00 KBS 오늘의 경제 10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	00 TV 유치원 30 최강합체 미스미스터(재)	3 0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50 MBC 뉴스	10 F1그랑프리 특집 다큐 인사이드 그랑프리
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	00 사랑의 가족 30 영화의 바다로 오세요	4 00 우리 아이 뇌를 깨우는 101가지 비밀(재) 30 보글보글 곡 2	00 스캔2고 30 꾸러기 탐구생활
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	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	5 00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<애정만년세>(재)	00 SBS 뉴스라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전국 TOP 10 가요쇼(재)
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	00 생생 정보통	6 00 6시 뉴스캐리진 50 생방송 전국시대	30 생방송! KBC 투데이
25 일일연속극 <우리집 여자들>	20 생방송 세계는 지금 50 호우리기	7 45 일일 시트콤 <하이킥! 짧은 다리의 역습>	10 시사타치 따따따 20 일일연속극 <당신이 잠든 사이에>
00 KBS 뉴스 9	50 KBS 뉴스타임 55 수목 드라마 <영광의 재인>	8 15 일일 연속극 <불굴의 여신공주> 55 MBC 뉴스데스크	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
00 특집다큐 잃어버린 오아시스 50 아름다운 사람들		9 55 수목미니시리즈 <지고는 못살아>	55 드라마 스페셜 <뿌리깊은 나무>
00 KBS 뉴스라이드 40 현정프로 통행	15 해피투게더	10	15 스타부부쇼 자기야
25 KBS 뉴스 35 콘서트 필2	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 특강	11 05 커버댄스 페스티벌 K-POP 로드쇼	
		12 00 MBC 뉴스 24 10 MBC 100분 토론	25 나이트 라인 45 축산부 축제 한마당

“박시후는 준비된 배우... 문채원은 딱 세령”

KBS '공주의 남자' 집필 끝낸 조정주·김옥 작가

“박시후는 준비된 배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 이 드라마를 통해 어머마 하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. 문채원은 오묘되지 않은 느낌이라 처음부터 세령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아름다웠습니다.”

KBS '공주의 남자'의 조정주·김옥 작가가 지난 석 달여 승유와 세령으로 살아온 박시후와 문채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.

드라마 종영 후 만난 두 작가는 “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주인공이 정말 잘 어울렸고 잘해줬다. 7~8회 넘어가면서는 연기자들이 너무 잘해주

니가 작가로서 대본을 더 잘 써야겠다는 긴장감마저 들었다”고 말했다.

먼저 박시후에 대해 김 작가는 “솔직히 크게 기대안했는데 이번에 연기하는 것을 보고 준비된 배우라는 것을 알았다. 승유는 보여줄 게 너무나 많은 배역이라 보통 배우는 소화하기 힘들다. 그런데 박시후가 해내더라. 감탄했다”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.

조 작가는 “승유가 옥중에서 몸부림치고 세령의 목을 조르는 연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. 기존에 박시후가 보여줬던 연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 나오더라”고 칭찬했다.

문채원에 대해서는 두 작가 모두 “처음부터 세령 역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”고 입을 모았다.

김 작가는 “깨끗하게 생겼고 오묘되지 않은 느낌이라 좋은 이미지였다”고 말했다.

조 작가는 “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. 초반에 연기 톤을 잡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일었지만 그 이후에는 세령을 아주 잘 연기해줬다”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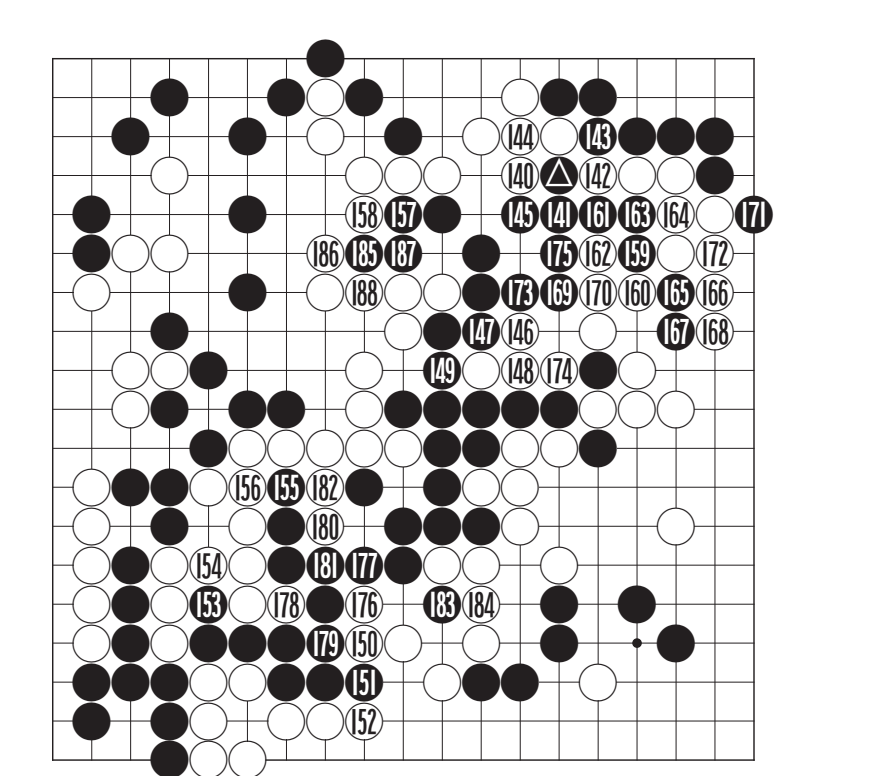
이들은 승유와 세령의 비극적 사랑이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집중했다고 말했다.

이들 작가는 김종서 역의 이순재와



수양대군 역의 김용철에 대해서는 “말이 필요없는 존재감으로 극을 받쳐줬다”고 말했다. 다만 시간상 수양대군은 더 조망하지 못해 아쉬워했다. 두 작가는 '공주의 남자' 성공 기념으로 제작진과 함께 17일 광로포 포상 휴가를 떠난다. /연합뉴스

제20회 광주·전남 직능비특대외



우변에 백 집이 많이 불안한데다가 흑 대마는 후수로 살아야만 해서 백의 승리가 거의 굳어진 분위기다. 이제 흑의 희망은 흑 149로 붙여서 왼쪽 흑 대마와 수상전을 노려보는 것이다. 그러나 이런 싸움은 대개 백이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붙는다고 하면 심중 팔구는 백이 완벽하게 유리할 때만 벌어지므로 흑의 패배는 이미 예견되고 있다.

백 144로는 먼저 145에 하나 나가두는 것이 유리했으나 조영배 5단은 알기 쉽게 두고 있다. 백 146, 148로 중앙의 흑 집을 없애고 나서 150으로 흑 대마를 잡으려 간 것이 초강수로 아예 타협의 여지를 없애고 있다.

이렇게 되면 죽기 아니면 살기의 수상전이다. 대개 유리한 쪽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싸움은 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렇게 잡으려 갈 정도면 확신이 섰다고 보아야 한다.

열핏 보면 이 수상전은 흑도 수수가 많아 보인다. 그러나 백이 178로 찌르는 순간 흑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. 백 188로 잇고보니 수가 많이 부족하다. 통쾌한 대마상상에 성공하는 순간이다.

오규철 9단 <본보 바둑해설위원>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3일(음 9월 17일 辛丑)

36년생 뜻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곧 풀린다. 48년생 문서로 뜻밖의 수입이 발생한다. 60년생 소모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다. 72년생 해어날아라. 72년생 사람은 늦게 올수록 격렬한 법이다. 84년생 주변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. 행운의 숫자: 91, 30

37년생 옛 것으로 말쑥이 있어날 수 있다. 49년생 일에 바쁘게 가하면 성과를 거둔다. 61년생 경험자와 상의하고 인연에 신중하라. 73년생 생이 깊은 물은 가뭄을 아니 타느니라. 85년생 이성을 만나기 전에 뒷사람에게 자문하라. 행운의 숫자: 44, 35

38년생 다 알고 있는 일을 정작 알아야 할 이는 모르고 있다. 50년생 자재야말로 최대의 승리니라. 62년생 경쟁의식을 버리고 실력 배양에 진력하라. 74년생 자존심은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니라. 행운의 숫자: 30, 23

39년생 오랜 세월 속의 열정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다. 51년생 될 것 같은 계획이 계속 미루어진다. 63년생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고강령을 버려라. 75년생 마지막 고성이 남아 있다. 행운의 숫자: 35, 94

40년생 자신이 직접 하라. 52년생 어울리게 화를 입을 수 있다. 64년생 모든 일이 길사로 연결되며 이룰 수도 있다. 76년생 교양이란 인간의 부단한 인위적 노력으로 인해 얻어지는 아름다운 몹이니라. 행운의 숫자: 52, 34

41년생 얻는듯하다가 잃을 수도 있다. 53년생 성공은 가장 끈기 있는 이가 취하니라. 65년생 너무 평범히 단계를 할 시위는 끊어지느니라. 77년생 자신으로 인해 주변 동료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다. 행운의 숫자: 61, 47

42년생 준비하고 있다면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느니라. 54년생 두 번의 조심은 한 번의 조심보다 낫다. 66년생 당황하지 않도록 하라. 78년생 부친의 건강도 살펴보고 문안 인사를 드려라. 행운의 숫자: 25, 69

43년생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의 일에 소홀할 수 있다. 55년생 힘든 일이라는 판단이 서면 빨리 접어라. 67년생 새로운 인연은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. 79년생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여려라. 행운의 숫자: 25, 99

44년생 인내하고 있으면 편안해지리라. 56년생 희망은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니라. 68년생 한 가지 일에 매ette 되어 버리면 만사가 흥하게 된다. 80년생 기록하여 두는 것도 좋은 해소방법이 될 것이다. 행운의 숫자: 78, 27

45년생 실행하고 있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. 57년생 주관과 객관적 사실과의 조화가 필요하다. 69년생 옛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협조가 있으리라. 81년생 인간 관계란 인사에서 출발하니라. 행운의 숫자: 31, 55

46년생 길사가 적으니 조심하여 추진함이 상책이다. 58년생 생산적인 습관의 반복은 성공의 길을 이끄는 열쇠니라. 70년생 제반사를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. 82년생 교만이 절실하오 구된다. 행운의 숫자: 85, 37

47년생 좋은 날이지만 주변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. 59년생 서리가 와야 잘게 있는 나무를 아느니라. 71년생 이익은 명성보다 나으니라. 83년생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양한 기법의 개발도 노력이다. 행운의 숫자: 29, 19

www.cafe.daum.net/sajoo114 ☎010-9790-8237

신비령

갓 2달된 애동제자

맑은열력으로 신비령의 열정함을 시원하게 전해드립니다.

연화사 ☎010.5523.0510 062.675-0510

EBS

06:00 극한직업	10:00 최고의 요리비결 <김박업의 추억이 담긴 밥상>	16:45 방귀대장 뽕뽕이(재)	19:00 오스카의 오아시스
06:30 미래직업, 또는 직업	10:30 60분 부모	16:55 꼬마버스 타요(재)	19:10 제로니모의 모험
07:00 오스카의 오아시스	11:30 이빠 놀이취요	17:15 키득키득 실험실(재)	19:35 스포츠 토크
07:10 제로니모의 모험	12:00 EBS 정오뉴스	17:25 레온	20:00 이빠 놀이취요
07:35 꼬마기관차 토미스와 친구들	12:10 TV일화사정관	17:35 피플리팝	20:30 EBS 뉴스
07:45 뽕뽕뽕 뽕뽕	12:10 세계테마기행	17:45 부릉! 부릉! 부릉! 부릉! (재)	20:45 지식재널@
08:00 뽕뽕뽕 유치원	13:00 미래직업, 또는 직업(재)	18:00 생방송 특! 특! 보니헤리1	20:50 세계테마기행
08:20 꼬마버스 타요	13:40 미래직업, 또는 직업(재)	18:10 생방송 특! 특! 보니헤리2	21:30 극한직업
08:35 키득키득 실험실	14:00 EBS 다큐 프라임	18:15 생방송 특! 특! 보니헤리3	21:50 EBS 다큐 프라임
08:45 깨미	15:00 스킨 한국어	18:20 창의가 반짝!	22:40 극한직업
09:00 방귀대장 뽕뽕이	15:30 미스 스페이더와 개구쟁이들	18:35 울리비아	23:10 다큐 10+
09:10 부릉! 부릉! 부릉! 부릉!	16:15 깨미(재)	18:40 생방송 특! 특! 보니헤리4	00:00 지식재널(재)
09:25 똑딱똑딱 밥이저씨	16:30 뽕뽕뽕 뽕뽕(재)	18:50 와글와글 친구들	00:05 독립다큐관: 초경 패밀러
09:40 변신로봇 5			

EBS플러스1

04:10 EBS 포스 <비문학>	<윤연주의 외국어영역>
05:00 2011 FINAL 실천모의고사 <박복의 정자>	13:00 <이희명의 세계사>
05:50 <강승희의 윤리>	14:00 <민병권의 경제지리>
06:40 <송원희의 지구과학 I>	15:00 EBS탐스런 <송원희의 지구과학 I>
07:30 EBS 탐스런 <최선목의 지구과학 II>	16:00 <최선목의 지구과학 II>
08:20 <할보리의 윤리-문화>	17:00 기보과 특별한 (재) <객원문의 수학(하)>
09:10 <할보리의 윤리>	18:00 <영문법 숨겨찾기>
10:00 공부의 왕도(재)	19:00 2011 FINAL 실천모의고사 <여한중의 생물 II>
10:30 EBS 다큐 프라임 <임미가 달라졌어요>	20:00 <최선목의 지구과학 II>
11:20 EBS 내신 6급 <정승제의 수학(하)>	21:00 <한중철의 생물 I>
12:10 2011 FINAL 실천모의고사	22:00 <정재인의 물리 I>
	23:00 <신승진의 세계지리>

EBS플러스2

08:00 매경 TEST 시험 대비 강좌 <과학 3-2>	15:50 <과학 4-2>
08:30 독학사 교육 강좌 <과학 3-2>	16:20 <과학 5-2>
09:00 EBS TV 중3 <영어>	16:50 <과학 6-2>
09:40 <국사>	17:20 EBS 중3 <수학1-2>
10:20 EBS 중3 퍼펙트 체크업 <과학>	18:30 <과학>
11:00 Magic 중학영문법 Level 2 <과학>	19:10 EBS 중2 퍼펙트 체크업 <수학 2-2>
11:50 EBS TV 중2 <비문학2>	19:50 EBS TV 중2 <비문학2>(재)
12:30 <도덕>	20:30 <도덕>(재)
13:10 EBS TV 중3 <현문>	21:10 EBS TV 중3 <영어>(재)
13:50 중학영어특해 Level 3 <영어>(재)	21:50 <국사>(재)
14:30 초등6학년영어Ready Set Go <영어>(재)	23:10 Magic 중학영문법 Level2 <영어>(재)
14:50 EBS 클림뱅크 <국사>(재)	00:00 EBSe 생활영어(재)
15:10 창의가 반짝!	
15:20 EBS 초등-내공남남	

우리말 나들이	굿모닝 잉글리쉬	니하오 중국워	오하오유 니혼고
<h3>매다/매다</h3> <p>신발 끈을 매다. 가방 끈을 매다.</p> <p>“매다”는 ‘끈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잇걸고 잡아당기어 잘 풀 어지지 않게 마디를 만든다’는 뜻이고, ‘매다’는 ‘어깨에 얹치거나 올려놓는다’ 또는 ‘어떤 책임을 지거나 임무를 맡는다’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.</p> <p>우리말 모음 발음 ‘개’와 ‘개’의 구별이 쉽지 않아 ‘찌개’, ‘육개장’을 ‘찌개’, ‘육개장’으로 잘못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.</p> <p>-매다: 웃고름을 매다. -매다: 나라의 장래를 메고 갈 사람.</p>	<h3>What exactly happened?</h3> <p>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?</p> <p>A: Excuse me, I'd like to report a missing passport. B: Okay, madam. What exactly happened? A: Well, I went shopping today on 5th Avenue. I definitely had it when I went out. When I got home it was gone. I think it was stolen from my bag. B: It's possible. Is anything else of value missing? A: No, just the passport. B: You'd better report this to the Embassy. I'll give you the contact details.</p> <p>A: 여보세요, 여권을 분실했는데요. B: 아 그러세요, 손님.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? A: 음, 제가 오늘 5가로 쇼핑을 나왔는데요. 제가 외출할 때는 분명 가지고 있었는데, 집에 돌아와서 보니 제 가방이 없더라고요. B: 그럴 수 있죠. 귀중품이 없어졌나요? A: 아뇨, 그냥 여권만 없어졌습니다. B: 대사관에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,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.</p>	<h3>問 jiǒng</h3> <p>할</p> <p>영문 'OTL'은 무릎 꿇고 좌절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이라고 합니다. 글자 모습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지요. 중국어의 问(중국어로 표기하면 问 상단의 八이 꺾여지지 않고 눈썹이 처지는 모양으로 나오니다)은 '빛나다'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이지만, 문자나 온라인 언어에선 '우울하다, 놀란다, 설레인다, 속상하다' 등 여러 감정표현에 사용되는 글자입니다.</p> <p>사람 얼굴모습의 눈썹이 처진 부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. 우리말로 번역하면 '할' 정도 되겠지요. '할'을 어떻게 설명할까요. 아무튼 다양한 감정이지요.</p>	<h3>先生も分からないと言いました。</h3> <p>선생님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</p> <p>A: 南さん、この漢字は何と読みますか。 B: さあ、難しいですね。先生に聞いてください。 日本語の先生だったら分かるでしょう。 A: 先生に聞いたのですが、先生も分からないと言いました。 B: 先生でも分からないものもありますね。</p> <p>A: 미나미씨, 이 한자는 뭐라고 읽습니까? B: 글썩요, 어렵네요. 선생님에게 물어 주세요. 일본어 선생님이라면 알겠지요. A: 선생님에게 물었습니까? 선생님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. B: 선생님도 모르는 것이 있군요.</p> <p>[단어정리] 과거형 + ~たら ~라면 중지법 + ~ても ~라도</p>
<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>	<동아 외국어학원> www.donga.tv ☎ 222-6253	<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> www.littlechina.co.kr ☎ 233-9582	<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> http://www.kjasuka.co.kr ☎ 232-1503